

생물의 네트워크

풍부한 북쪽의 바다, 츠시마 (対馬) 난류의 혜택

이 지역의 바다에는 동지나해에서 발생하여 동해를 북상하는 츠시마난류에서 나뉘어, 소우야 (宗谷) 해협을 지나 오오츠크 연안까지 달하는 소우야난류가 흐르고 있다. 또, 전체가 대륙붕 위에 있는 비교적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많다.



바다사자, 바다표범, 바닷새류의 서식

이 공원의 해역에는 겨울철 정박이물범 등의 바다표범류나 바다사자가 회유해 온다. 때로는 물개의 모습이 보기도 한다. 여름철 리시리섬 (利尻島)에서는 갯가갈매기와 큰재갈매기가 레분섬 (礼文島)의 토도시마에서는 흰눈썹바다오리가 번식하고 있다. 또, 이 외 이동 도중의 지느러미발도요와 습새류의 큰 무리를 만나는 일도 있다.

물범 (Phoca vitulina)



큰부리큰기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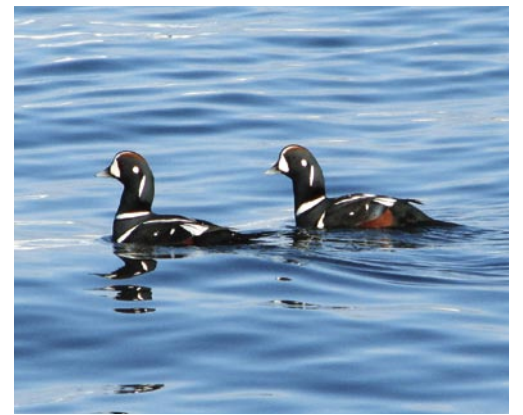
큰기러기는 대형의 기러기로 큰기러기와 큰부리큰기러기이라고 하는 두 아종이 일본에 도래한다. 큰부리큰기러기는 캄차카반도에서 번식한 것이 일본에 도래하고 있다. 루트는 고니와 거의 같고, 캄차카반도로부터 사할린을 경유하여 홋카이도 (北海道) 북부에 상륙하고, 홋카이도서해안을 남하하여 혼슈 (本州)로 향한다.



고니 (Cygnus columbianus)

고니 (백조) 류

일본에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고니류는 큰고니와 고니의 2종이다. 이 중 큰고니는 시베리아의 타이가지대에서 번식하여 사할린에서 홋카이도 (北海道) 동부를 거쳐 태평양해안으로 주로 남하한다. 한편, 큰고니보다 북쪽의 툰드라지대에서 번식하는 고니는, 사할린에서 홋카이도 북부로 상륙하여 사로베츠반도와 오호츠크해안의 쿄차로호수로 날아들어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홋카이도서해안의 테시오강 (天塩川)이나 이시카리강 (石狩川)의 본·지류를 따라 남하하여 토마코마이 (苫小牧)의 우토나이호수를 거쳐 혼슈 (本州)에서 월동한다. 봄에는 이 반대의 코스로 북상하여 번식지로 돌아간다.



흰줄박이오리 (Histrionicus histrionicus)

철새의 중계지

사로베츠 습지는 많은 철새의 이동 루트상에 위치하고 있어, 휴식과 영양보급의 장소로서 중요한 곳이다. 때문에 이 일대는 2005년에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습지조약인 람사조약에 등록되어 있다. 이외 주변해역에는 바다펭 등 많은 겨울새가 도래한다.

철새의 주요경로



쇠기러기